

극성

모든 것은 동시에 있고, 없다

| 세명의 입문자 | 김태항 옮김 |

현상세계는 늘 이것과 저것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진정으로 높고 낮음이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이 끝과 저 끝이 아닌가? 그같은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이기에 양극단은 서로에게서 서로에게로 변환될 수 있고 결국에는 양 극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 극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위 대한 헤르메스의 4번째 원리는 극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현
시된 모든 것은 양극단 사이에 많은 등급을 지닌 ‘양면’ ‘양극’
‘반대 쌍’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오래
된 패러독스들은 이 원리로 설명이 된다.

인류는 늘 이 원리와 비슷한 것을 인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격언과
금언으로 이것을 표현하려고 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있고 없다’ ‘모든
진리는 반만 진리이다’ ‘모든 진리의 반은 거짓이다’ ‘모든 것에는 두 가
지 측면이 있다’ ‘모든 방패는 뒷면이 있다.’

헤르메스 가르침은 서로 반대로 보이는 것들 사이의 차이점은 단순
히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 또한 ‘반대되는 쌍은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
다’라고 하며 정과 반은 속성상 동일하나 그 정도에서 다를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대 속성의 조화’는 극성의 원리를 알아야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헤르메스 스승들은 극성의 원리의 예는 모든 곳에서 목격이 될 수
있고 사물의 참된 속성을 조사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헤르
메스 스승들은 영Spirit과 물질Matter은 같은 것의 다른 두 극성이고 그
중간의 여러 계는 진동의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다음과 그 창조물은 같으나 정신적 현시의 정도degree of Mental
Manifestation가 다를 뿐이고, 마찬가지로 근원법칙과 파생 법칙은 같
은 것의 두 반대 극성이고, 근원 원리는 파생 원리와 같고, 무한 마음
은 유한 마음과 같다고 한다.

그들은 뜨거움과 차가움은 속성상 동일하나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한
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반대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들은 같은
것이지만 정도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

온도계를 보면 많은 눈금이 있고 가장 낮은 눈금은 “차가움”이고 가

장 높은 눈금은 ‘뜨거움’이다. 이 두 극성 사이에 많은 단계의 ‘뜨거움’ 혹은 ‘차가움’이 있다. 눈금이 높으면 더 따뜻하고 낮으면 더 차갑다. 절대적 기준은 없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같은 것이지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온도계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시작되는 그런 기준점은 없다. 모두가 진동의 높고 낮음의 문제이다. ‘높음’ ‘낮음’은 같으나 극이 다를 뿐이다. 이처럼 용어는 상대적이다.

선과 악도 절대적이지 않다. 한쪽 끝은 선, 다른 끝은 악이라 부른다면, 어떤 것이 높은 등급의 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덜한 선’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그 아래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은 위치에 따라 상대적이 된다.

‘동쪽과 서쪽’의 경우나 ‘빛과 어둠’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두개의 극성 사이에 정도가 다른 여러 가지 빛과 어둠이 있어서 달라 보인다.

어디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시작되는가?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단함과 연함’의 차이는, ‘검은 색과 하얀 색’의 차이는, ‘날카로움과 무덤’의 차이는, ‘시끄러움과 조용함’의 차이는,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극성의 원리는 이런 역설을 설명하고 다른 어떤 원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원리는 멘탈계에도 작동한다. ‘사랑과 미움’의 경우, 이 두 정신 상태는 화합할 수 없는 정반대의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극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서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절대적 사랑이나 절대적인 미움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둘은 같은 것의 다른 두 극성에

적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미움의 수준과 사랑의 수준이 있고 그 중간점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 혹은 미움’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랑의 강도는 커지고 내려갈수록 강도는 약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중간점에서 감정은 그 구분이 희미해져서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용기와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다. 반대 쌍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나의 극이 있으면 다른 반대극도 존재한다. 항상 두 극이 존재한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극성화 기법Polarization’을 이용하여 현재의 정신 상태를 다른 정신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변환이 될 수 없으나 같은 부류에 있는 것들은 변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극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성을 변화시켜 사랑을 동(東)이나 서(西)로 혹은 붉은 색이나 초록색으로 만들 수는 없으나 미움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용기는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단단한 것은 부드럽게 될 수 있고 무딘 것은 날카롭게, 뜨거운 것은 차가운 것으로 될 수 있다.

변환은 늘 같은 부류에서만 일어난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경우, 두려움과 용기의 경로를 따라서 정신 진동을 올리면 마음은 용기로 채워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속성의 경로를 따라서 극성을 변화시키면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

정신과학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하여 알고는 있어도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 깔려있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

극성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신 상태가 모두 정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극성을 바꾸려면 의지로 진동을 높이거나 낮추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가 많다. 그러나 극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마음 상태의 변화가 극성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변화는 하나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는 않고 같은 것이지만 그 정도가 변한다. 예를 들어서 물질계에서 비유를 가져온다면, 뜨거움이 날카로움, 큰소리, 높이 등으로 변하지는 않으나 진동을 낮추어서 쉽게 차가움으로 변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미움과 사랑은 상호 변환될 수 있다. 정신 상태에는 무수히 많은 부류가 있고 각각의 부류는 반대 극성을 가지며 같은 부류 내에서 변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물질현상에서만이 아니라 정신 상태에서도 두 극이 각각 양(적극성)과 음(소극성)으로 구분이 된다. 사랑은 미움과 비교되면 양이고 마찬가지로 용기는 두려움에 비교되면 양이고, 활동은 비 활동에 비교되면 양이다.

진동의 원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양은 음보다는 높고 지배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양이 지배적 흐름을 띠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극화현상 기법으로 정신 상태의 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다양하게 목격되는 정신 감화력Mental Influence 현상도 극성의 원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일어난다.


정신감응Mental induction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진동률이나 정신 상태의 극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극성을 변

화시키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많은 정신치료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우울해 하고 두려움으로 차있다고 하자. 정신치료사는 훈련된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진동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극성을 얻어서 정신감응을 통하여 A에게 비슷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진동이 올라가서 A는 부정적 극성 대신에 긍정적 극성을 띠게 되고 두려움이나 부정적 감정이 용기나 다른 유사한 긍정적 감정 상태로 변화된다. 약간만 연구해도 이런 정신 변화는 거의가 극성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남을 알 수가 있다.

극성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도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신 상태가 모두 정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극성을 바꾸려면 의지로 진동을 높이거나 낮추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음 상태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지식으로 학도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지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학도들이 극성의 원리에 친숙해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극성의 원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끝) 

- 이 글은 『헤르메스 가르침: 키발리온』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세 명의 입문자** Three Initiates |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세 명의 헤르메스 입문자로, 1912년에 이 책(The Kybalion: A study of the Hermetic Philosophy of Ancient Egypt and Greece)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을 “세 명의 입문자”로 칭하면서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적인 원리를 소

개하고 해설한다.

역자 | **김태항** | 동국대학교 법학과,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교육학 석사. 기업체 연수원에서 사
원교육을 담당하였고 대학에서 영어강사를 역임하였다. 오랫동안 동서양 가르침 특히 유대신비 가
르침인 카발라와 고대 신비 가르침을 공부하여왔으며 현재 출판과 번역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카발라의 신비열쇠』 『도마복음과 카발라』 『슬픈 예수』 『진짜 삶을 위한 개념 넘어서
기』 『구도여행과 소리 없는 소리』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모던 매직』 『유대명상』 『성경과 명상』 『인
권 운동 이야기』 『마음챙김과 감정치유』 등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헤르메스 가르침 : 카발리온

세명의 입문자 지음 | 김태항 옮김 | 출판사 하모니 | 정가 13,500원



왜 모든 것은 관리하면서 영혼만은 방치하는가?

이 책은 모든 신비 사상의 아버지이고 점성술의 설립자이며 연금술의 창안자인 헤르메스의
핵심 가르침을 소개한다.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 원리는 이러하다.

1. 유심론의 원리, 2. 상응의 원리, 3. 진동의 원리, 4. 극성의 원리, 5. 리듬의 원리,
6. 원인과 결과의 원리, 7. 성의 원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비 사상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가르침은 헤르메스에서 근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신비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를 제공할 것이다.